

12th Story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Prodigal Son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 12th Story -

- 나레이션**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어.
- 작은아들** 아버지.. 제가 상속받을 재산 말인데요, 그 재산을 지금 받고 싶어요.
- 아버지** 뭐라고?
- 작은아들** 네. 그.. 왜, 아버지 재산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는 몫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 아버지** 어... 그러니까.. 애야, 애비는 아직 아프지 않아~
- 작은아들** 네 알아요. 저도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걸 바란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받을 거니까 지금 제 돈을 받고 싶다구요.
- 아버지** 아.. 그래.. 음... 그렇게 하마
- 예수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나눠주었어. 며칠 후, 작은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지.
- 작은아들** 와!!! 난 이제 세상으로 떠난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보면서 실컷 여행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먹을 거야! 난 왕처럼 살 거야! 아싸~~ 굿 바이~~~
- 아버지** 잘 가라 아들아...
- 예수님** 작은 아들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비싼 식당에 가서 실컷 시켜먹으면서 돈을 물 쓰듯이 썼고, 항상 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엄청 비싼 선물들도 아낌없이 사주었지. 심지어 자기가 샀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단다. 방탕한 생활로 한 동안을 보내던 어느 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 동전 한 닢도 없었지. 게다가 금방 배가 고파졌고,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



예수님 작은 아들은 어디든,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찾아낸 일이라고는 시골 농장에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일뿐이었어.

작은아들 저, 실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을까요? 저 정말 돈이 필요해요..

농부 음.. 없어요.

작은아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농부 흠... 좋아요. 그렇다면 돼지 먹이를 주세요.

작은아들 돼지에게 먹이를 주라고요? 저는...

농부 싫음 말고.

작은아들 아니에요! 돼지 먹이 주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굉장한 일 이예요!!

나레이션 작은 아들은 그 일을 했지만 돈을 모을 수는 없었어. 음식을 넉넉하게 사지도 못했고 항상 배가 고팠어.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

작은아들 아! 너무 힘들어.. 이 돼지들은 냄새 나고 나까지도 냄새가 나잖아, 더러워! 너무 배가 고파.. 뭐라도 먹고 싶어.. 이 쥐엄 열매 같은 걸 누가 먹는단 말야? 그지 같이 생겼잖아.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건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절대! 절대로!..... 아니야...이 열매라도 먹어야겠어...

예수님 작은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까지 먹었어

작은아들 (돼지에게) 으앗! 니네 진짜 이걸 맛있다고 먹냐? 진짜 돼지 같으니라구~ 아니 돼지 맞지. 니네는 맛이라는 게 뭔지 도통 모르는구나? 하아...난 이제 도대체 뭘 해야하지? 잠깐... 맞아.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 많은 품꾼들이 날마다 잘 먹고 먹을 것이 남아돌기까지 하는데, 난 여기 앉아서 이탄거나 먹고 있구나. 그래..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꾼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살기만 해도 좋겠다.

하지만.. 안 되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난 너무 바보같이 굴었고 무례했고 이기적이었고, 게다가 가진 돈은 몽땅 다 써버렸잖아. 아냐,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빌어야겠어. 난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





- 예수님 그 작은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단다.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도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면서 멀리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이게 얼마 만이냐? 어떻게 지냈니? 어디를 다녀온 거니?
- 작은아들 아버지, 저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너무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서 저 같은 놈은 아들이라고 불려질 자격도 없어요. 그냥 이곳에 살면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도 될까요?
- 아버지 어이! 어서 서둘게나,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게나! 저기!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서 잡도록 해~ 우리 다 모여서 먹고 즐기세나!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이젠 살아났고, 내가 잃었었지만 이젠 되찾았대요.
- 하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살진 송아지, 이게 뭐야? 성경 시간?
- 예수님 모든 일꾼들이 행복하게 그 날밤의 축제를 준비했지.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신나는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 큰아들 여기, 음악과 파티라니, 무슨 일인가?
- 하인 동생분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셔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서 오셔서 동생분을 보세요!
- 큰아들 뭐라고? 아니야! 저 녀석을 보고 싶지 않아!
- 예수님 큰 아들은 유산을 받아 도망친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파티를 한다는 소식에 화가 났었어. 자신은 나쁜 짓을 하거나 도망을 친 적도 없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파티를 해준 적이 없어서 질투가 났어.
- 큰아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 아버지 아들아,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란다.
- 나레이션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자 말문이 막혔고 예수님을 더더욱 없애버리고 싶어했어요.